

목포~제주 해저터널 이번엔 실현 될까

전남도, 타당성 재조사 착수 2010년 용역 뒤집을 지 주목 용역비 낮아 신뢰성 우려도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난 2010년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용역 자체가 중앙정부의 뒷연대다 용역비도 지나치게 낮아 신뢰성을 줄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도는 25일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8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2억원이었던 용역비는 전남도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5000만원으로,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3162만원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이 용역을 지난 2010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기려했으나 과도한 금액 요구에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은 목포와 제주 간 해저터널로 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로 잇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것으로 내년 8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국토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소관이지만 전남도가 사업 추진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발주했다.

전남·제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서해안 지역 고속철 수요, 해저터널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에 못 미치는 0.84로 나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전남도는 당시 2026년이 돼야 제주도 관광객이 연간 1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지난해 이미 그 수치를 돌파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재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제3차 국가 철

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공론화를 통해 내년 대선 정국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여야 의원 90명은 지난달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북 광역단체장도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다만

제주도는 해저터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적이 검증돼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재검증 결과에 대해서 정부부처도 인정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은 목포~해남 지상 66km, 해남~보길도 교량 28km, 해저터널 73km 등 총 167km 길이로 건설 기간 16년, 총 사업비 16조8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여수 국제해양포럼 개최

25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2016 여수 국제해양포럼' 참석 인사들이 개최 선언에 맞춰 박수를 보내고 있다.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여수박람회재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주관했다. <전남도 제공>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조기 정착 공동 연구

광주전남연-에너지밸리개발원 협약

광주전남연구원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심층 연구를 함께 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광전연은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에너지밸리개발원과 상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조기 정착의 성공 등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지역 발전 기여에 협약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협정을 통해 ▲빛가람에너지밸리 정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조사·연구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추진 ▲고유 업무의 정보교류 및 자원의 공동 활용 ▲전문인력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업무경쟁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지역 문화·예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사·공유 및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세미나 공동개최를 통한 문화의 심층연구를 다짐했다.

지난 14일에는 전남대병원과 의생명과학 및 의료산업 분야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도 역할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남해안 갯녹음 현상 심각

연안 면적 23% 942ha 달해 ... 해조류 없어 어족자원 고갈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

'바다 사막화' 방지 시민운동

전남 남해안에도 바다의 사막화라고 불리는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녹음이 심해지면 해양 생태계가 급격하게 황폐화될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추진위원회(이하 박람회 사후위)에 따르면 1992년 제주 해역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갯녹음 현상이 보고된 이후 경북 연안으로 퍼졌다. 이어 최근에는 전남 남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면 대형 해조류가 붙어 살 환경을 잃게 되면서 전복이나 소라 등의 딱이 부족과 안정된 서식공간 상실 등으로 2차 소비자인 어류의 서식장과 산란장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곧 수산 자원의 고갈을 불러오게 된다.

전국적으로 연안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갯녹음 지역이 여수 앞바다를 비롯해 남해에도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남 연안 면적의 23%인 942ha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잠수사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오전동 등 바다 수심 10여m 아래에는 생계와 불가사리만 보일 뿐 해조류를 찾아볼 수 없고 바위들이 하얗게 드러나는 등 바다 사막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들의 어업 손실 등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 피해액도 70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인 여수수협 위판고는 2011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4년 만에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어민들은 추산하고 있다.

“고속철 경주 경유는 되고 무안 경유는 왜 안되나”

주승용 의원, 정부 차별 비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시 사업비가 1조 1500억원 가량이 더 든다는 이유로 기존 선을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것이다. 아니면 경주를 경유해서 갈 것이냐로 이견이 있을 때 결국 정부는 주권을 수용해서 사업비 1조 3000억원을 늘려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며 “왜 호남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는 안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지역의 요구로 경주 경유를 수용했듯이 무안공항 경유도 미래 호남 발전을 위해서 조속

다. 김영현 박람회 사후위 공동위원장은 “바닷물의 수소가온농도(pH)가 8.2이면 정상으로 보는데 최근 측정된 광양만권에서는 평균 8.03 pH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수치가 0.1만 떨어져도 바다 사막화 현상이 많이 진행되는데 현재 광양만권도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람회 사후위는 박람회 정신인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기초한 박람회정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바다사막화 방지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람회 사후위는 바다사막화 방지 협약 기구를 국제연합(UN)에 설치해 그 사무국을 여수박람회장 안에 두는 것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람회 사후위는 광양만권의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광양만권과 인근 남해안에 25기가 넘는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문제 개선, 광양만권과 여수산단 등에서 바다로 방류하는 오염물질 차단, 대형 선박의 평행수 광양만 방류 제한, 섬진강 하구 등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의 유지 수량 복원, 인공어초의 재질과 성분 등 분석 투입, 가두리 양식장의 3년 단위 이동과 바다 청소,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람회 사후위는 오는 26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1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다 사막화 현황과 방지를 위한 국회 1차 토론회’를 열어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모니터링을 벌이는 ‘바다사막화방지 포럼’을 구성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 고막원-목포에 대한 노반 기본설계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했다.

주 의원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될 것”이라며 “이런 생색내기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선 확정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주식 투자의 멘토 '세계로TV' 김원기 대표의 노하우를 잡아라

3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료 주식 강연회 열려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투자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실전 매매에 있어 최소의 손실과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투자의 열망을 이뤄 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주식투자 31년 경력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주식 전문가, 바로 세계로TV 김원기 대표다.

매주 진행되는 전국 순회 무료강연회는 김원기 대표의 주식투자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강연회를 통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도 선물해주고 있다. 강연회는 한주간의 주식동향에 대한 내용과 팁을 모아 특강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시사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강연회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지방 강연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10월 강연일정은 2일 온양관광호텔, 9일 인천 경원재메리어트호텔, 16일 대전 인터시티호텔, 23일 대구 그랜드호텔, 30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가치투자' 배당, 시세차익 1석2조 안전한 투자법 부산, 울산, 대전, 인천 등 지방 강연 호응 뜨거워..

주식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라면 세계로TV(www.segerotv.com)에 접속하면 된다. 세계로TV의 주요 콘텐츠는 증권교육과 투자자문이 큰 틀을 이루면서 장중에는 시장분석과 종목추천, 종목진단과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투자자제와 승판, 원칙 등 명쾌한 투자법을 제시한다. 상승 모멘텀과 추천주, 기술적 분석은 물론 시장 트렌드에 맞는 투자교육과 추천 종목을 리딩하고 있는 성공 투자를 위한 길라잡이 인셈이다.

특히 <신가치투자 김원기 대표 클럽>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매집에 의한 종목을 체계적으로 회원들에게 추천함으로써 꾸준히 큰 수익을 거두는 중이다. 실제 회원들의 매매 결과 수익률은 세계로TV 사이트 내의 회원매매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1000만원을 기부한 회원, 2년 10개월 만에 14억을 번 회원 등 '신가치투자'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회원들의 일화가 알려지면서 세계로TV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급증

하고 있다. 주식매매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주식투자에서 무모한 행동으로 승부를 걸었다간 아무리 자금이 많더라도 모두 날리고 말 것이다.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선 적절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듯 주식투자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수적이다. 전략이 없으면 승리도 있을 수 없다. 주식투자에서 말하는 전략과 전술이란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장기간 안정된 수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초단기적으로 승부해 고수익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 이익 실현과 손절매 같은 모든 대응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치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연적 이유다.

세계로TV 김원기 대표는 국내 여러 기관이 인정한 최고의 투자법 '신가치투자'를 창시, 경제금융 분야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김원기 대표의 주식투자 성공 비법은 대체 무엇일까? 답은 바로 '신가치투자법'이다. 그가 창시한 이 투자법은 먼저 차트를 분석하여 기술적 분석에 의한 이평결집의 매집을 확인하고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을 선별하여 상승초입인 엘리퍼머트의 2파 국면에서 분할 매수하는 손절 없는 투자법으로, 안정적인 급등 시세를 볼 수 있다는 탁월한 강점이 있다.

"신가치투자는 '사놓고 마냥 기다리는' 기존의 가치투자를 넘어 매집이 되고 저평가된 우량한 주식을 급등 직전에 매수하는 투자방법이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주식을 기약 없이 들고 있는 것만큼 심리적으로 힘든 일도 없다. 신가치투자는 손절 없이 안정적이며 매집된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급등 시세가 나오므로 투자자들에게는 부자가 되는 투자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워렌 버핏, 30년 경력 최고 전문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랑나눔 실천 릴레이

끊임없는 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완성한 이 투자법은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 대가들의 이론을 탐구해, 이를 기반으로 예외와 변수가 있을 수 없는 투자자가 부의 열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주식투자 안내서로 평가받고 있다.

김원기 대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사람으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랑 나눔 행사'는 그가 매년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나눔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며, 성공을 꿈꾸는 이유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김원기 대표는 나눔장학회와 어르신 사랑 나눔 잔치, 각종 바자회나 위문공연, 불우이웃 이불 및 연탄기부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문의 (02)336-2226

